18일 Market Index
코스피 3177.28 (-48.38)
코스닥 798.05 (-17.21)
금리(국고채 3년) 2.426 (+0.022)
환율(원·달러) 1385.45 (+3.44)

#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訪美 성과

# 빅테크 파트너십 가속 반도체 경쟁력 청신호

**엔비디아와 회동 HBM 수주 기대**
**테슬라·애플과 대형 계약 성사도**

**美 수출 33조 ⬆, 中 수출은 감소**
**파운드리 투자 확대 관측도 나와**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미국 장기 출장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방미 기간 동안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미 전략을 구체화해 더욱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 15일 약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친 뒤 귀국했다. 이 회장은 귀국 직후 내년도 사업 준비 계획을 언급해 반도체 부문의 추가 수주 성과 및 대미 후속 투자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94% 감소하며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이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HBM 납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HBME3 12단 품질 테스트 통과와 차세대 HBM4 납품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HBM4 1c 나노 공정의 양산 전환 승인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게 샘플을 이미 출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6년 HBM4 수요 본격화에 맞춰 적기에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1c 나노 케파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출장 기간에 테슬라, 애플과 대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 소식도 알리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첨단 공정 양산에 돌입하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칩을 생산한다.

애플과는 신기술을 함께 개발 중이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은 33조 47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 수출액은 28조 7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한 수치다.

중국 시안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생산법인 삼성 차이나 반도체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4146억원 63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7%, 영업이익은 17.2%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파운드리 고객사 추가 확보 및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HB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회장과 젠슨 황 CEO의 만남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점유율을 되찾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경영계 "노란봉투법 수정·1년 유예" 호소

**이번주 본회의서 법안처리 예고**
**'사업상 결정 제외' 등 강력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 회장과 함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노사관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것이란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번 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활동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의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美 50% 철강 관세' 407종 품목 추가

**기계류·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
**정부, 업계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즉시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업계와 긴급 실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기계·자동차 업종 협회 관계자들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강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공유했고, 필요하면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합의된 상호 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6월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상 여지를 차단한 채 관세망을 전방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 상당수가 이번 대상에 포함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우리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 이후 뚜렷한 하락세다. 1월(-5%)을 시작으로 2월(-4%), 3월(-11%), 5월(-12%), 6월(-8%), 7월(-3%) 등 매달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관세 인상과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확대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20일 만찬
▲정청래, 한국교회총연합 예방… '남북관계' 개선 역할 주문 /사진 뉴시스
▲기후위기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국방부, 민주당이 '극우 추천 도서'로 비판한 진중문고 폐기 지시
▲대통령실 "김형석 관장, 국민적 의견과 사회적 논란에 귀 기울여야"
▲방송법·양곡법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 "고의적 허위정보, 책임 물어야 마땅"